

#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판카즈카필라  
목사

##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 시편 23:1 -

-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졸업(M.Div)
- 현) 재한몽골학교 강사
- 현) 서울 외국인 선교회(나섬공동체) 부목사



내일의 강사 **문성** 선교사

- 현) 파푸아뉴기니 미히 부족 25년간 사역



이벤트 당첨자는 대표로  
한 분만 주일날 출판홍보부로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제3교육관 풍원빌딩 3층
- ★ 출판홍보팀

##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작년엔 3살, 1살 아이들을 데리고 영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없어 설교도 잘 안들리고  
힘들어 중간에 결국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첫째가 4살이되어 어린이 다니엘기도회를 가고  
둘째만 데리고 영아부실에서 예배 드리고있어요  
체력적으론 쉽지않지만 함께 예배 드릴날이 많지않다  
생각하니 이시간들이 소중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날까지 아이들 아프지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수있기를...^^

임소현

하남교구



##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자 모집

오론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에 함께할 봉사자 100명을 다음과 같이 선착순 모집합니다.

봉사 일시 11.18(토) 오전 9:00~오후 1:00(4시간)

참가 자격 오론교회 중학생 이상 성도(봉사 확인서 필요시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신청)

※ 사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11.12(주일) 오전 9:30~오후 1:30 접수 장소 교회 1층(안내데스크 옆)

문의 섬김과 나눔 위원회 총무 허수환 안수집사 010-5325-2591



##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  자리 잡아주지 않기
-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  음식물 반입 하지 않기
-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송병주 목사 - 마가복음 6:33-44 -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과한 기적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며, 하나님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성경 속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과시용 사역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사고로 장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죄라고 여기던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었다. 고통 속에 있는 약자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며 더욱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그들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임을 보이셨다.

기적의 시작은 Ambition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궁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사무엘 리마’ 목사님은 은퇴하시며 “잠재적으로 성공하려는 은밀한 도구가 내 목회의 동력이 되었었다. 나는 천국의 언어로 그 은밀한 도구를 위장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성공하겠다는 야망은 우리 마음에서 긍휼을 빼앗아 간다. 오병이어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나에게는 자폐진단을 받은 막내아들이 있다. 나는 그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 수많은 병원을 쫓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내가 들었던 외마디 답은 “No. He Can't!”였다. 마음에 절망이 밀려왔다. “젊은 날엔 부모님을 다 데려가시고 이젠 아들마저 이렇게 힘들게 보내주시다니 왜 그러십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아들 준영이를 한 달만이라도 정규과정에 다니게 하고 싶었다. 기도하면서 유치원에

사정했더니 딱 한 달을 허락하였다. 준영이는 간절히 바라던 좋은 선생님 반에 배정이 되어 한 달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등교하는 날 교실 문에 ‘준영이는 다른 반으로 가라’는 Notice가 붙어 있었다. 준영이는 신참 선생님께 배정되었다. 억울하고 속이 상했다. 베테랑 선생님과 공부할 기회는 빼앗기고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할 것 같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선생님께 배정되었다. 마음에 절망이 왔다. 나는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그 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였다. 준영이를 너무 사랑해주셨다. 예쁜 여자아이를 붙여서 One Day Tour담당을 시켰다. 그 아이는 천사처럼 준영이를 잘 챙겨주었다. 여자아이의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그 엄마는 우리 아이가 이기적이었는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care하는 일을 좋게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다. 한 달 뒤 선생님들은 준영이에게 처음으로 “He Can!”이라는 말을 하였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딸아이는 동생 준영이 때문에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고 저소득층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준영이가 참 많은 일을 하였다.

막내 준영이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준영이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아오리다.” 아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리라.’ 준영이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부끄럽게도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떻게 말리지? 힘들 텐데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난다. 다시 생각해보자.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위질하지는 말자! 내 안에는 불가능의 증거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데리고 꿈을 꾸는 분이시다. 불가능의 증거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떡여라!” 하고 말씀하신다. 순종할 때 불가능의 증거들은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줄리아나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줄리아나

지난 18년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자비량 선교를 해 온 양철수 선교사(67세)는 우리와 다른 모습의 필리핀 사람들을 선행으로 따스하게 보듬어 왔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원치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성 심장복합 기형을 앓고 있는 줄리아나(6세)를 만났습니다. 필리핀 바콜로드 케손 울로에 위치한 빈민마을에 살고 있던 이 소녀는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상에서 생선을 파는 아버지와 허드렛일을 하는 어머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부로 일하는 언니가 버는 돈으로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가산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줄리아나 모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양철수 선교사는 심장 수술을 시켰습니다. 줄리아나 모녀는 병실에서, 서울에 머물 곳이 없던 양선교사는 병원 로비에서 지내며 줄리아나의 회복을 지켜보아 했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 창원의 양선교사 집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회

복 상황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마지막 수술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줄리아나 모녀의 한국 거주비용과 수술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엔 포기할 수 없다는 양철수 선교사. 그런 양선교사를 의지하고 있는 줄리아나 모녀는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줄리아나는 건강이 회복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모녀의 기대와 꿈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러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윤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윤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모태신앙인 저는 오륜교회에서 약 7년 동안이나 대형교회가 주는 익명성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기도회도 그저 교회 행사 중 하나 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쓰러지게 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교만했던 자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살려달라 우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공공하며 돌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아이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국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없애주시면 이제 세상 즐거움, 죄를 버리고 똑바로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며 처음으로 아이에 배에 손을 얹고 눈물의 기도를 하였고, 다음날 거짓말처럼 아이의 부푼 배가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다니엘기도회는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로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이 은혜로운 축제를 그동안 외면했었던 제가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매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은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가 거듭되면서 나로 하여금 점

점 다니엘기도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셨고, 그렇게 전도에 소심하던 제가 주변에 다니엘기도회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 주변에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2017 다니엘 기도회에는 부족하지만 등록간사로 헌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담당 목사님들의 아픔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7 다니엘기도회를 드리면서 현실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강사님들의 간증과 설교에서 엄청난 고난의 시련에도 이겨내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도 풍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회사생활 중에도 다니엘기도회에 온전히 참석 가능한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예배들에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너무도 기대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기도제목에도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원재 집사 | 방이교구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